

定總열어 活性化도모



◇工大동창회 총회후 열린登山大會

崔희장·金총장 참석、活性化 독려
基金造成문제 公同관심사로 부각

李燦河 동문 會長선임
會長團 대폭 增員키로

다양한 事業계획 결의

스카이에부에서 50여명의 동
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
원개선과 장환금 수여식을
결한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梁承現 간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지난
3월 임기중 작고한 李孝
益 前회장에게 대한 추모의
목념으로써 회장인사를 대
신했다.

대학원 경영학과 자치회
장인 金東會 會長에게 장환금

財團法人 설립에 따른
基金확보방안 등 논의

대해 큰 보람을 얻기를 느끼며, 이것은 다른 동창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본인 일기』 1년 동안 市道支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동창회와 모교를 위한 기금 마련 등 일련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다짐했다. 金鍾云(鍾雲)은 추사를 통해

農科大學同窓會(同窓沈鍾燮)는 5월 22일 수원교내 대청강의실에서 崔圭鏞(충무공) 회장을 비롯, 曹興本(會士) 무처장, 沈鍾燮(회장), 高在君(모교 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沈炯贊(한 農業科學史博物館)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구성, 재단법인 설립 기금 100만원의 도사업보고, 朴英善(김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회차 발간, 회원 支會의 유대 강화 및 모교후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도록 1억 1천2

大齒 李春根회장 連任 결의
同門 상호간 紐帶 강조

대 **李春根** 회장 **連任** **결의**
同門 상호간 **紐帶** 강조

齒科大學 동창회(회장李春根)는 지난 5월 21일 모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鄭鍾平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7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李春根회장의 활기 넘친 운영으로 시종 열띤 분위기를 뽐냈다.李春根은 인사말을 통해「그동안 여러 임원들이 수고한 결과 지방지부 결성 이 완료됐다」면서「現시대가 정보시대인 만큼 과거보다 동창회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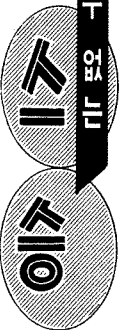
임원개선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회무와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의안심의로서 회칙개정이 있었 다. 임원개선은 李春根회장의 유언을 결성했으며, 吳壽徹崔在京張相憲 등문을 특별로 선임했다.

한편 결별행사로는 李勝雨前명에 동창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을 하던 한편 李鍾舒동문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姜敏求 동창회장 留任
理事·監事陣 새로 구성

黃才茂 부회장의 사회로
 신현민 이사장은 이날 모인 92년
 결산안 승인과 임원선
 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협
 제 17대 고문 부회장의
 추천된 후보인 조영환의
 의
 도
 附議條件을 만장일치로 통
 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姜敏求 회장
 을 유임시키는 한편, 상임
 이사와 이사선임회장을
 이말기로 합의하고, 감사
 에 白樂準·李文浩·金準卿
 후보를 선임했다.

OK 수 영 기



— 글 · 吳生根 (70년 文理大卒 現教授) —

金鵬九先生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동경에서 서울대학교 시절의 일들이 습기찬 동부 연구실들과 그 건물 1층의 왼쪽 끝방이 떠오른다.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회자되는 선생님의 표현으로, 研究室 鬼神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께서 당시를 포함한 대역석 분의 人文學者들을 일컫는 것이었다.

선생님(金鵬九)은 「연구실 귀신」담에 실려있던, 명실상부한 일일일인, 산파하지 않고서 거의 매일같이 연구실을 지키셨다. 學者가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는 정열을 아무런 크게 갖더라도 진을 하숙처럼 여기고 연구실을 집처럼 생각하기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봐도 참으로 어마무시하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못나고 못된 家長」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동부연구실을 집이나 가족보다 더 아끼는 분신처럼 말씀하셨고, 그곳이 구실들이라 불리던 방불처럼 어둡고 실내도 침침하지만, 그래도 여길 들어서면 조용하고 마음이 가라앉아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마음 편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선생기도 제대로 없던 한 여중에 가끔 부채질을 하면서 편한바람을 바람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한 겨울에는 조개탕을 떠난 난로가 있었지만 엄청난 찬을 으로 스며드는 추위나 냉기가 들 가지지 않았던 연구실 책상위에 무엇이 앉았었던 60년대와 70년대초의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면서 학문하는 자세의 어떤 決然함을 일깨워준다.

저녁이면 대체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드시고, 선생님의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던 詩人 보들레르의 「詩에서처럼 취하고 싶은 마음」이로써

은 무엇보다도 그 연구실과 연구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의 리듬이 깨어지는 것을 눈치챘다. 관학인의 새로운 전파가 아무리 웅변하고 건물이 현대적이며 편리하다 하더라도 그곳이 낯설고 살벌하게 느껴진다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동경 연구실에 대한 애정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결국 관학인으로 이사진 다음에는 그 현신을 받아들인다면 선생님은 곧 그 관학인들과의 싸움과 정열을 뜨겁게 일의 다른 노력을 기울이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란 오래 두고두고 사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관학인과 새로운 연구실은 70년대 중반부터 선생님의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버렸다. 선생님이 좋아하신 佛文學 作家들의 생애와 비평은 바로 「그런」 길들여진 관계를 강조하고 인간관

「연구실 鬼神」자칭: 決然한 탐구정신 전지文學을 가난과 불행 극복하는 힘으로 信奉「불문학 散考」는 유려한 文體, 적확한 논리 名著

계속해서 인간의 특색하고 개성적이고 풍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하셨는데, 선생님의 인간관계에서도 그처럼 「늘어난」정성과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평소의 별로 말씀이 없었고 고요하고 세속적인 인화應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대중적인 편견이나 流行에는 超然해 있는 듯이 보일만큼 孤高하면서 강직하고 무뎠는데 보이는



◇ 40代의 김봉구선생님

선생님이었지만 선생님의 특유의 인격적 품모와 애정의 표현은 단란한 바가 있었다. 워낙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價値判斷이 명료하신 분이였기 때문인지, 일단 좋아

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울이는 애정이 「늘어난」정성 은 보였으면서 지속적인 것이었다. 筆者가 선생님의 弟子로서 일흔은 해의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자신하거나 겸손한 것과는 달리크고 넓은 것이었으며, 표현적 이거나 직설적이 아닌 후후한 마음의 표현이자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만드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었다.

선생님이 1962년 황해도 홍천에서 태어나서 海州에서 중학교를 다니셨고 日本에 잠시 유학하셨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여 해주중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던 중, 월남하여 서울 대에編入하였다. 처음에는 국문학과에 들어오다가 곧 불문학으로 전향을 바꾸면서 불문학에 빠져들었는데, 일본 유학때에도 네덜란드 한 학자집으로 고생을 하였던 적이 훌륭단신으로 서울에

내려와 서울대학교에 편입하여 약간의 노력을 하시고 학생으로 온갖 역경속에서 공부하셨다고 한다. 오직 불문학에 대한 열정만으로 건장을 돌보지 않았고 그때엔 만성위장병, 위산과다, 위궤양, 선생님의 오랜 持病이 되어 있던 강의실에서 위장질환으로 쓰러져 半의식을 질타하는 수고를 받기도 하셨다.

선생님은 체구가 마르고 장단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해주중학교 교사 시절만 하더라도 「로맨스의 발자크像을 연상시키는 황소같은 체구」때문에 그때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반자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서」로 옮겼을 때와 비교하니 발자크는 건데 없고 뼈마디는 프루스트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전 생애의 소용돌이속에서 3.8선을 두세번이나 넘나드는 고초를 겪고 부인인 체면을 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더 증폭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문화는 선생

「文學에 살고 있다」고 표현할만큼 열정적으로 佛文學개척에 정진

르트르」카뮈, ... 하나하나 미쳐들어갔다. 사나운 독수리같이 그 심장을 쏘아 피를 보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는 가혹하지만한 생애리듬(성실성). 형은 문학을 산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실존은 obsession에 몰려 미쳐있다」이처럼 문학을 「살고」 불문학에 「미쳐있다」는 열정으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것은 70년대에 접어들어 쓰르트르의 생애와 비평, 李光洙와 沈蕙를 그들의 인간觀, 對他觀, 사회觀, 對社會觀, 外界觀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한 「作家와 社會」(1973)와 詩人의 생애와 詩世界의 특성을 치밀하게 조명한 「보들레르」(評傳, 美學과 詩世界)(1977)이다. 좋고 싫음이 분명했던 선생님의 성향으로 「作家와 社會」에서 쓰르트르를 다소 편향된 관점에서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생애와 비평의 보들레르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시야에 가까운 애정과 깊이있는 인식을 드러내셨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말을 읽고 감동해 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그 아름다운 眞實을 알 수 있으며 하물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의 심스런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인만큼, 선생님의 작가와 문학연구는 그만큼 감동적 체험의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자연과학자가 자연현상을 냉정히 객관화시켜 보는 것과는 달리, 對象에 대한 主觀的評價와 理解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문학적 인식이라면, 선생님의 프랑수아 푸앵카레 연구자의 독특한 개성적인 품모와 세계가 담겨있는 어떤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보들레르에 대한 연구는 그런 점에서 단연 돋보이는 연구이다. 또한 지드, 카뮈, 말루토, 루소 등 불문학사의 중요하게 평가되는 많은 작가들의 原書를 역시 개성적인 문체로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선생님의 불문학을 널리 전파한 외국문학자로서 뿐 아니라 번역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을 일깨워준 분으로서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는 오랜 친구인 영문학과 黃燦鎭선생님이 「불문학자」에 쓴 다음과 같은 발문을 통해 잘 표현되어 있다.

「정언도 내 소견으로 문학을 살리고 있다고 서슴지 않고 내세울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 — 바로 김봉구형이다. 남다른 비판과 좌절과 유달리 모진 고비를 겪어가면서, 그래도 중학교 때의 붓을 끼고 다니다서 詩만 쓰고 있다가 대학교에서는 처음에 국문학을 파고 들더니 암만해도 무슨 갈증을 느꼈는지, 불문학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지드에 미쳐다니 말루토, 랭보, 샤

94學年度

母校入試방침

各界동문觀을 들어본다



서울대대입고장
趙圭三(54년 師大卒)

이제까지는 학생들이 참의 적인 사고를 키우려 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해왔을 뿐이다. 바뀐 주관식 위주의 시험제도는 이러한 학생들을 다시 본연의 학문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入試基本方針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첫째, 입시의 기본 골격과 그 반영 비율을 보면 수학과는 30%, 문과와 공과 분야는 70%로, 서울대에 지원할 학생들의 성향을 예상할 때 그 편력이 이렇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험의 효용성을 얻기 어렵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母校의 入試方針은 우리나라 高等教育에 至대한 影響이 미치게 될 것은 尙상 疑無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보다 깊은 研究와 慎重性이 各別히 要求되는 狀況으로 教育立國에 同參하거나 平素에 큰 關心을 갖고 있는 同門 賢達의 意見을 소중히 받아 실으면서 入試制度의 定體이 時急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編輯者>

母校는 內申 40·修能 20·本考查 40% 원칙 적용



안양대학교장
黃五性(49년 師大卒)

대학입고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기본적인 자율권이라 하겠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나름대로 교육의 방향과 학문자율에 관한 특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 나름대로의 특색이 바로 그 대학의 전통이며 학문적인 자랑이라고 하겠다.

대학의 전통은 학문연구에 있는 것이며 대학은 학문연구를 위해서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에 대학입고장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과대학이란 바로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려서 공정하게 뽑느냐에 그成败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의가 있는 대학입고장을 보고자 고등교육정책의 내신제도와 과목제도를 비교하면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全國高校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연계의 경우에도 원서 독해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특필수 과목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본다. 셋째, 각 과목별 출제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먼저 國語의 경우, 세 가지의 출제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 실용 평가 문제를 보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지니는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선 敎師들의 교과 지도나 학생들의 학습 방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修能시험보다 本考查가 더 중요

후진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육의 적성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優秀別度로서는 역시 크게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입학 시험제도의 현실에서 벗어나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兩者共存의 形態를 감안해서 제정한 것이 개정된 대학입학시험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새 대학입학제도도 대학별 본고사 실시와 그 본질과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修能시험보다 本考查가 더 중요

1년전에 발표한 대학별고사 실시를 믿고 열심히 대비해 온 많은 학생들의 실망과 충격을 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보더라도 대학별고사 실시를 예비대학생들에게 진정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우캐리어 부사장
金榮華(63년 工大卒)

교육부의 9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근거로 마련된 母校의 最高案을 보고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하고자 한다.

현행 입시제도는 대학정원을 확보하고 졸업생은 아무렇게나 시켜주는 상황이라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시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



〈母校교무처장〉
白忠鉉
(61년 法大卒)

대학별고사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행사와 고교교육 정상화와의 기여를 기대하는 개선안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이다. 이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지만, 첫째, 내신성적은 수험생을 배제한 고등학교의 발원권이라는 장점에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표시된 성적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둘째, 수학능력시험은 전국규모의 시험이 갖는 출제수준과 변별력, 특히 감점제조차 없는 객관식출제가 갖는 한계를 피할 수 없다.



고교개발원 선임연구원
許柄其(84년 大學院卒)

크게 두 가지 점에 비추어 서울대학교의 本考查 실시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나는 고등학교 內申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닌 대학입학 전형자료로서의 문제점들을 독자적인 본고사를 통해 보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가 실시할 본고사가 우리나라 추종형교육이 전신하고 있는 교육의 秀越性 추구와 하나의 자각과 진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고교내신제도와 수학능력시험은 그것만으로 대학입학선발을 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고교내신제도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 차이를 무시한 채 개별 학교내의 상대적 우열만을 학교간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서 오는 불공평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은 시험제도의 이의에서 오는 別別力의 한계와 객관식 출제방식이 지닌 평가력의 불충분성 문제를 안고 있다.

內申·修能·本考查 공히 1/3씩...

들다. 이러한 학생들이 현행 입시제도에 불려 공부치상수의 호를 받는다. 全人的 性의 근간인 德性이나 志의 共有를 깨달을 사이도 없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대학별고사 內實외해 高校교육 正常化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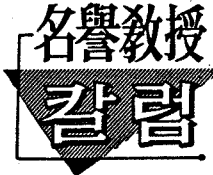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추종형교육의 秀越性 향상에 바람직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추종형교육은 高次的인 사고능력과 창조적 탐구력을 기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그와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평가방식으로 본고사를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 추종형교육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의 방향이 빛나거나 정도가 지나쳐 부합성의 비생산적인 입시경쟁만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 秀越性 측면서 本考查 환영

한 가지 덧붙여, 대학별고사가 추종형교육을 더욱 왜곡시키고 과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고사 실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몇몇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하는 안하는 우리나와 비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에 그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이제 교육정책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원칙을 중시하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고사 실시방안은 대학의 권위와 책임에 기초한 자율적 결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갖는 긍정적 가능성, 즉 공부하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에 기초한 교육의 秀越性 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순간의時差

오늘날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편이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겪어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名譽教授 갈렙

미국, 또는 후주의 시간의 차이, 즉 지구상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어 경도의 차이만큼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유래한다. 인공위성은 수십분마다 지구를 한바퀴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 사람은 무중력상태에 접어들어서 적실한

지구를 느끼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여기에 도예가가 있다. 요즘 통 시종계용으로 쓰이는 정지 시차를 느끼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여기에 도예가가 있다. 요즘 통 시종계용으로 쓰이는 정지 시차인데 이러한 시간대 는 것이다.



玄正峻 (自然大 명예교수)

(帶)의 경계 근처에서는 동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1시간의 차이를 얻을까? 라는 경우도 생긴다. 나는 어렸을 때 압록강 연안인 신의주에서 강 건너 중국의 압록강 기차 통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1km의 다리를 건너서 기차로 7분 걸리는 거리인데도 국경의 양 쪽에서 1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일 제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시간 은 동경 1백35도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압록강은 동경 1백24도정도였으므로 일본의 본토에서 보면

으로도 일어났을 지경화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강의 침식으로 수직높이 1천6백m로 파인 길이 3백50km의 거대한 계곡이다. 이 계곡 밑바닥에서 보이는 지층은 지구의 나이(46억년)의 발을 넘는 오랜 과거에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1천6백m의 높이는 지구의 오랜 역사에 비 금가는 거대한 시차를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다들 때까지의 시차가 빛의 속도를 곱함으로써 거리로 환산되기 때문에 1년의 시차는 1광년의 거리로 계산된다. 달리 말하면 약 3만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수의 중심부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약 3만 년전의 중심부의 활동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하여 먼 천체의 과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차가 우주의 역사(약 2백억년)에 비금 갈 경우에는 짧은 동안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날 알게 되었다.

이것은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의 시초에 가까운 시기에 격동의 역사가 있을 때면 1초 이하의 극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순간의 시차를 우리는 결코 가늠해 지내질 수 없는 것이다.

法大14회同期會

法大 14회는 다른 同期會와 구별되는 2가지 면이 있다. 56년의 입학생이었던 매년 2월 24일에 정기총회를 여는

보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5천만원의 同期會 기금을 조성,父子2대 동문에게는 입학금과 금 10은 정도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고 있으며 특히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가족앨범은 동기들의 결혼일자와 결혼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신상명세까지 실려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同會의 또다른 특징은 14회 졸업생들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은 丁海昌(前대 통령비서실장·변호사),崔東奎(前동무부장관·극동정유사장),宋彦鍾(前 고등법원장, 鄭相鶴(前 지법원장, 金昌洪(前주지청장, 鄭秉燮(前주교집사, 李洪均(서울고검집사, 趙俊熙(朴斗煥石鎮康, 沈勳鍾(姜鎰奎·金柱祥·徐燦洋 등)이 변 호사로 활동 중이다.

각분야서 두각 《브레인軍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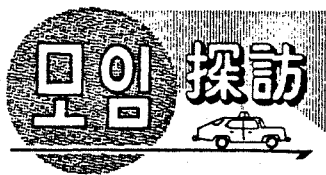
金鎮卓총무, 30여년 헌신

다는 점이다. 14회 동기 생들은 모두 3백16명 (여자 16명)으로 官界에서 長次官단 20여명을 배출할 정도로 주위로 부터 「브레인軍團」이라 는 소리를 듣는다. 대표적 인물만 살펴 보자면, 법조계에서는 安又萬(前법원행정처장, 尹永哲(前법관, 金聖一(前진

운대표이사), 朴千鶴(前 리나코리아 부사장), 崔秉秀(아주생명사장), 姜仁鉉(한양중전고교), 許榮(한국투자증권 전무), 朴鍾翊(인국화재전무), 李龍鎬(보람은행 상무이사), 宋漢清(동원은행 전무), 慎三揆(신원은행 감사), 崔炳興(동성사장), 申光澤(제일은행 전무이사), 韓基真(서울 신탁은행 상무이사), 沈英煥(중협이사)등들이 있다.

卒業 30년 기념앨범, 他동문들 부러움 사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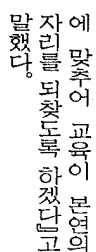
金鎮卓(前)은 金正瑞(동 아일보원장), 李相河(프레스센터이사장), 咸是勳(국민일보 편집국장)등들을 들 수 있다. 현재 同會의 任員은 金義在(회장)·서울시공무원 고윤원(부회장)·비롯해 鄭又謨(대명실업 사장), 李璇輝(신광기획 사장), 丁境根(삼광전기공사 대 표)등들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金志妍기자)



◇李在昌(앞줄 가운데)등문의 경기지사 在職시 지사공관에 서 모임을 갖고 그 옆 팔짱 낀 이가 金義在 同期會長

그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새롭다.

정몽 교육화자로서 최초의 國立(大全南大) 道院(道院) 장직을 무너트 수행해낸 행정력을 겸비한 吳贊賢은 『풀어나갈 과제들이 山積(山積) 있으나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의 辭(辭)를 밝힌다. 덧붙여 吳贊賢은 우리 교육의 現狀(現狀)을 반드시 『改革(改革)』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 전제하면서 『교육개혁의 第一(第一)은 仁心(仁心)과 仁術(仁術)』



“교육개혁이 인간중심 教育으로
동창회 光州支部 회장으로 헌신

지난 73년 한국天主教사
상최초로 로마 교황청으로
부터 평신도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騎士자위를 받은바
있는 吳長관은 취임식 직후
가진記者간담회에서『신앙
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럼이

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뒤편관의 이강은 신임에
 터잡은 교육자로서의 자세
 는 지난 80년 光州민주화운
 동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표
 출된 바 있다. 학생들의 배
 후조종자로 몰려 주동학생

한번 팔지 않고 걸어온 교육자로서 우리 교육의 현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고 있기에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있어 무게있는 行步가 예상된다.

入閣직전 동창회 光州·全

“책임 · 法治 · 화합을 教育行政 지표로 삼을터”

「『류』이 哲學에 있어서의 經驗에 관한 研究」로 博士學位(84년)을 받고 『吳松』, 『實業교육의 제문제』, 『교육원리』 등 著書와 30여 편의 비평있는 논문들을 발표해 교육의 제분야에 걸친 解안을 드러낸 바 있지만 이러한 표상적인 의미보다는 『吳炳文』이라는 인물을 체에 대한 신뢰가 그를 교육행정인으로서 이끌었다는 평이다.

南支都 회장으로 선임됨
를 열심적인 「서울대」인
기도한 뒷장판에게 동문들을
과 동창회에 한마디를 부랴
하자 「서울대」교를 졸업했
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
가와 민족에게 큰 빛을 미
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
족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서울대인이 되자면서 「동
창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도
와 더불어 모교가 맡고 대
로世界的인 大學으로 용비
하는데 견인역할을 해야
할것」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金庚勳기자〉

* 박신철공(90년) 社會大卒
 이선경양(6월 4일) 13시
 * 이원영공(86년) 自然大卒
 장해현양(6월 5일) 15시 30분
 * 김용덕공(93년) 法大卒・서
 유미양(91년) 師大卒(6월 6일) 12시 30분
 * 김소진공(88년) 人文大卒
 함정민양(6월 6일) 14시
 * 송상민공(88년) 工大卒・이
 영숙양(6월 12일) 12시 30분
 * 강창호공(89년) 師大卒・시
 해란양(6월 12일) 14시
 * 김성호공(86년) 農大卒(6월 12일) 15시
 염우양(6월 12일) 15시
 * 임준호공(89년) 自然大卒
 박정우양(6월 13일) 11시
 * 김기풍공(90년) 經營大卒
 신효정양(6월 13일) 12시 30분
 * 김충근공(89년) 社會大卒(6월 13일) 14시
 소연양(6월 13일) 14시
 * 이웅구공・유헌하양(91년) 普大卒(6월 13일) 15시 30분
 * 류호근공(92년) 工大卒・박
 윤숙양(6월 19일) 14시
 * 권영환공(93년) 齒大卒・유
 명희양(6월 19일) 15시 30분
 * 이상기공(87년) 農大卒・김
 나연양(6월 20일) 12시 30분
 * 최철호공(87년) 師大卒・맹
 현주양(6월 26일) 14시
 * 김정식공(87년) 人文大卒
 전길남양(6월 26일) 15시 30분
 * 임하균공(88년) 農大卒・이
 임주양(88년) 醫大卒(6월 27일) 11시
 * 정삼하공(90년) 工大卒・이
 임주양(6월 27일) 1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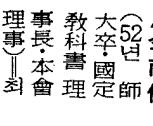
同窓會館 冠岳亭

結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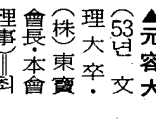
揭示

사編으로, 때론 나도 미행하고 싶었다란 수필집을 행. 정신과 專門醫로 의의 하물벗기 에 이은 두번째 수필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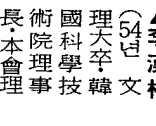
▲金起範(87년 普大卒, 曙報大교수) 〔최근 自作曲인〕 수필라, 첼로와 박을 위한 임의의 물리비와 작곡연에서 주치한 국제작곡콩쿨을에 入賞. ▲趙敏延(89년 普大卒, 하미스트) 〔지난 5월 1일 美아트스트〕 인터내셔널가 주치한 영 아티스트 데부 위너스 시리로 카네기홀에서 하프도 주회를 가졌다. 趙은문은 늘 육대 박사과정을 修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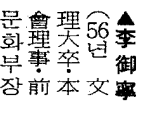
근 정부발령에 따라 국정교
과서 이사장에 취임.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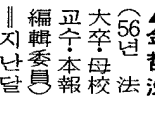
근 주식회사 東寶 회장에 就任. 元동문은 内外經濟, 코리아 헤럴드 監事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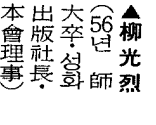
事) 지난 10일 中國정부가
北京에서 개최한 「市場經濟
체제하의 계획과 市場부분
의 役割」을 주제로한 國際專
門家團회의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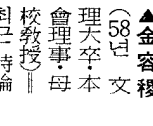
창작동화「꿈의 공전」이 된
생쥐 한 마리를 최근 발간
된 「민음사」화 7호에 발표.



1일 「法の날」에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勳章牧丹章과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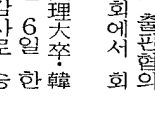


韓斗鎭(56년 醫大卒) 大韓
 病院協會長 〓 지난 23일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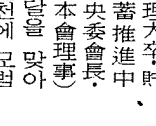


集「한국현대시 해석」비판
(시와 시화사刊)을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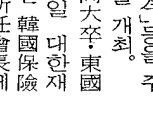
▲李正允(58년 文理大卒 東亞日報出版局長) 지난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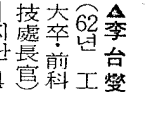
▲鄭春澤(58年) 文
理大卒。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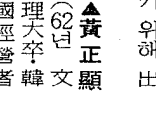
▲黃仁政(58년)文理大卒 韓
國開發研究院長 11지난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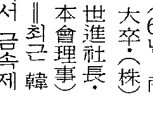
學會 會長으로
被選。 新仁會長은
▲丁鉉萬(62년 工大卒·鳳鳴
그를副會長) 지난 20일 북
명그를인사에서 기획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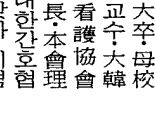
드대초청으로 「科學技術발전
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라는 주제로 강연키 위해 출
일 美하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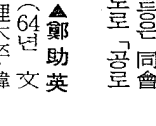
長・本會理事) 〓 지난 7일 經
總聯會 常任副會
總임직원과 함께 강릉동해관
광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



조업체인 주식회사 세진
장에 취임.



호춘(胡椿) 70주년을 맞이 기념
대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楊銀淑(54卒)·洪麗信(54卒)·
朴良子(54卒)·黃義淑(57卒)·
朴良子(64卒) 동창회司會



理事會主席、韓國科學技術副總理、韓國科學技術總局常任副局長、本會理事(最近國家科學技術會議委員) 崔元植



▲池憲澤 (47년) 齒
大卒·本會
理事·大韓
齒醫協顧問



▲崔鍾起
(54歲) 法
大卒，母校
立，韓國
國際關係
研究所理

28차 국제병원연합
운營業理事에 선임됨

열린 제
총회에서
다.

▲崔珏圭
(57년) 文
理天卒前



前文圭 서 제
한국개발원 이사로서 새
원장으로 選任. 黃동환은 산
업연구원원장으로 재임중이
었다.

▲李漢雄(58년 商大卒 信用
協同組合中央會長) 지난달

東國大교수) 〓 철
운영해오던 철
을 생활철학연
사단법인으로
한 「자기의 철

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議長秘書室長) 장비서실장에
문은민(당선
원장을 역임했
▲金基錫(64)

▲姜聲才(64년 法大卒)國
議長祕書室長) 최근 국회
장 비서실장에 임명된.姜
문은 민주당 성북을지구당
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조심스럽
 게 타진해본 국내 첫무
 대에서 '구체적이고 심
 세한 음악표현으로 작품
 성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강한' 피아니스
 트라고 호평 받음바 있
 는 **李賢洵**(82년 音大卒)
 등분.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
 音大에서 수학한 후 渡
 美, 샌프란시스코 국립
 음악원과 콜른게이트참
 련신학교에서 碩士를
 위스콘신주州大에서 博
 士를 취득한 **李鴻運**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통
 해 20여회의 독주회와
 레크리시이틀을 다량한
 연주활동을 해왔다.

音樂大學學堂의 후원
 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
 주회에서 **李鴻運**은 체르
 니의 즉흥변주곡 작품33
 으로 개회되는데 이번 연
 주회에서 **李鴻運**은 체르
 니의 즉흥변주곡 작품33

연주활동 만을이나 신악과
 드 키보드에게 師事했고
 생활에 두 성실한 **李鴻運**
 은 모친(李在元·57년 音
 大卒)을 비롯, 夫君 **李**
 相璿(82년 經營大卒·위
 스콘신州立大 조교)등
 3과합격으로
 花재를 불러 일으켰던
 동생 **李政祐**(89년 法大
 卒)(동문들과 함께 서울
 大家族을 이루고 있다.

◇ 工 科 大 學

人名 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 音樂大學

▲ 金明珠 57 卒 女

▲ 白樂皓 49 서울대 교수

▲ 曹祥鉉 51 서울대 교수

— 寶 貴 子 分 —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 韓相主 62 서을대교수인교수

◇ 醫科大學

▲ 金炳贊 66 한대병원교수
▲ 金勝煜 66 서을대교수
▲ 金漢基 64 소아과교수
▲ 金永振 62 서을대교수
▲ 金福樂 66 서을대교수
▲ 金正根 60 서을대병원교수
▲ 金鎮福 68 서을대교수
▲ 盧實澤 65 서을대병원교수
▲ 文命相 57 한대병원교수
▲ 文翰圭 67 한대교수
▲ 朴性九 66 조선대교수
▲ 朴貞淑 64 한대병원교수
▲ 朴贊雄 60 서을대교수
▲ 徐景弼 67 서을대교수
▲ 徐載鶴 63 소아과교수
▲ 孫晉昊 63 한대병원교수
▲ 前泰演 66 부교수
▲ 尹德善 61 한대병원교수
▲ 李 瀾 63 한대병원교수
▲ 李德洙 61 한대교수

◆ 李永好 61 오미아파트교수
▲ 鄭世興 61 서을대병원교수
▲ 鄭世愚 63 한대교수
▲ 趙榮熙 63 소아과교수
▲ 韓格喜 61 한대교수
▲ 韓東洙 63 한대교수

◇ 齒科大學

▲ 康根壽 70 한대교수
▲ 姜泰聲 67 한대교수
▲ 金賢九 64 한대교수
▲ 金顯豐 63 한대교수
▲ 邊頌奎 67 세브란스대교수
▲ 柳在煥 63 한대교수
▲ 李秀鍾 61 한대교수
▲ 李勝雨 61 서을대교수
▲ 李庸五 66 세브란스대교수
▲ 李九相 65 한대교수
▲ 張相憲 65 한대교수
▲ 鄭鍾平 65 서울대교수

◇ 大學院

◆ 韓相主 62 서을대교수인교수

◇ 醫科大學

▲ 金炳贊 66 한대병원교수
▲ 金勝煜 66 서을대교수
▲ 金漢基 64 소아과교수
▲ 金永振 62 서을대교수
▲ 金福樂 66 서을대교수
▲ 金正根 60 서을대병원교수
▲ 金鎮福 68 서을대교수
▲ 盧實澤 65 서을대병원교수
▲ 文命相 57 한대병원교수
▲ 文翰圭 67 한대교수
▲ 朴性九 66 조선대교수
▲ 朴貞淑 64 한대병원교수
▲ 朴贊雄 60 서을대교수
▲ 徐景弼 67 서을대교수
▲ 徐載鶴 63 소아과교수
▲ 孫晉昊 63 한대병원교수
▲ 前泰演 66 부교수
▲ 尹德善 61 한대병원교수
▲ 李 瀾 63 한대병원교수
▲ 李德洙 61 한대교수

◆ 李永好 61 오미아파트교수
▲ 鄭世興 61 서을대병원교수
▲ 鄭世愚 63 한대교수
▲ 趙榮熙 63 소아과교수
▲ 韓格喜 61 한대교수
▲ 韓東洙 63 한대교수

◇ 齒科大學

▲ 康根壽 70 한대교수
▲ 姜泰聲 67 한대교수
▲ 金賢九 64 한대교수
▲ 金顯豐 63 한대교수
▲ 邊頌奎 67 세브란스대교수
▲ 柳在煥 63 한대교수
▲ 李秀鍾 61 한대교수
▲ 李勝雨 61 서을대교수
▲ 李庸五 66 세브란스대교수
▲ 李九相 65 한대교수
▲ 張相憲 65 한대교수
▲ 鄭鍾平 65 서울대교수

◇ 大學院

◆ 韓相主 62 서을대교수인교수
◆ 醫科大學
▲ 金炳贊 66 한대병원교수
▲ 金勝煜 66 서을대교수
▲ 金漢基 64 소아과교수
▲ 金永振 62 서을대교수
▲ 金福樂 66 서을대교수
▲ 金正根 60 서을대병원교수
▲ 金鎮福 68 서을대교수
▲ 盧實澤 68 서을대병원교수
▲ 文命相 57 한대병원교수
▲ 文翰圭 67 한대교수
▲ 朴性九 66 조선대교수
▲ 朴貞淑 64 한대병원교수
▲ 朴贊雄 60 서을대교수
▲ 徐景弼 67 서을대교수
▲ 徐載鶴 63 소아과교수
▲ 孫晉昊 53 한대병원교수
▲ 前泰演 66 부교수
▲ 尹德善 61 한대병원교수
▲ 李 瀛 63 한대병원교수
▲ 李德洙 61 과교수
▲ 李永好 61 오대병원교수
▲ 鄭世興 61 한대병원교수
▲ 趙榮熙 60 소아과교수
▲ 韓格喜 61 한대병원교수
▲ 韓東洙 66 한대병원교수
◆ 齒科大學
▲ 康根壽 70 과교수
▲ 姜泰聲 67 과교수
▲ 金賢九 66 한대병원교수
▲ 金顯豐 69 과교수
▲ 邊頌奎 67 세브란스과교수
▲ 柳在煥 69 과교수
▲ 李秀鍾 61 과교수
▲ 李勝雨 61 서을대교수
▲ 李庸五 66 세브란스과교수
▲ 李九相 65 과교수
▲ 張相憲 65 과교수
▲ 鄭鍾平 69 서울대교수

71 7

[illegible]

소식

母校學籍課에서는 최근 증명서교부를 원하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화로든 훈육하기 쉬운 열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팩시밀리로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에, 91년도 일직집에 수록
되지 않았던 전년도 연구
임했다. 회장·齒學연구소장등을 역

母校는 1994년 入試

中大學別考査の國語科
 試験(模擬考査)を
 4月25日、수도권지역
 10개 고등학교의 상위권학
 생 2백명을 대상으로 실
 시했다。

92년도 모교 학부 졸업생과 석사 졸업생의 취업률이 91년도에 비해 각각 3%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교 학생처에 따르면,
---	--------------

92년도 모교 학부 졸업생과 석사 졸업생의 취업률은 82%, 순수취업률은 36%, 진화률 39%	91년도 취업률 86%, 순수취업률 41%, 진화률 38%보다	취업률이 각각
---	------------------------------------	---------

4%, 5% 감소했으며, 진화률은 1%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사과정의 경우 92년도 취업률 85%, 순수취업률 48%, 진화률 31%로 91년	은 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고환영자 취업난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
-------------------------------------	--	---

감소했으며, 진화률은 2% 증가했다.	
----------------------	--

總人員 2백47명 달해

◆ 李種昕 학장

자녀날 14일자로 齒科大學 李鍾斯(61년卒) 교수가 李勝雨先生の 후임으로 제 20代 學長에 취임했다.

신임李勝雨先生은 69년 모교에 부임, 그간 구강생물학을 연구하여 牙科學會에서 牙科學會 李鍾斯先生의 후임으로 제 20代 學長에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슈미트 前서독수장은 "유럽문화의 문 제와 展望"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슈미트 前서독수상이 「유럽통합의 문제와 展望」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기도 했다.

졸업생 就業率 평균 84%

년 도	구 성 성 별	성 별	졸업생 수	취업현황			합계	취업률 (%)	진학률 (%)
				취업	진학	군입대			
92 학 년 도	학 계	남	4,165	1,486	1,640	274	3,400	82	39
		여	3,093	1,060	1,300	274	2,634	85	42
	사 석 계	남	1,072	426	340	—	766	72	32
		여	2,026	967	625	132	1,724	85	31
	사 석 계	남	1,507	730	512	132	1,374	91	34
		여	519	237	113	—	350	67	22
91 학 년 도	학 계	남	4,274	1,735	1,633	317	3,685	86	38
		여	3,264	1,259	1,298	317	2,874	88	40
	사 석 계	남	1,010	476	335	—	811	80	33
		여	1,988	996	582	169	1,747	88	29
	사 석 계	남	1,550	744	494	169	1,407	91	32
		여	438	252	88	—	340	78	20

母校에서는 지난달 19일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명예교수선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명의 교수를 선정, 4월 26일 자로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이로써 모교의 명예교수는 1962년 처음이었던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추대된 명예교수 2명은 이대 총 2백 47명이 되었으며 그중 42명이 별세했다.

최근 母校도서관에서는 열람실에서 좌선독점을 하고 있는 ‘암채화생’을 만나하고 열람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在學生들의 贊反토론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座席獨占禁止制를 실시하고 있어 話題가 되고 있다.

『좌선독점 금지제』란 열람실

「눈길」
일소에 효과
 다. 이렇게 일단 자리를 잡게된 학생은 수업응답으로 몇시간씩 자리를 비우면서도 하루종일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 실제로는 빈자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영해은 도서관측은 지난달 중순

協議會총회 열고 懸案問題 등 중점 논의

영학) 曹正松교수(조경학, 연인)

영화) 曹正松교수(조경학, 연인)

國內 최대 규모
치과 병원 新築

임원명 호장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 孫鳳鎬교수 (사회교육), 安秉直교수 (경제학), 俞泰烈교수 (성악), 張潤錫교수 (의학), 張會鑾교수 (물리학), 崔敏浩교수 (농업교육)

▲감사 : 李正浩교수 (경제학)

서울대학교법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齒科법원을 새로 신축, 지난 18일 준공식을 갖고 진료에 들어갔다.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새 치과법원은 하루 1천여명의 외래환자 진료시설, 입원환자 38병상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座席독점 禁止制」눈길

국내최초, 찬반토론거쳐 「암체족」일소에 효과

다. 이렇게 일단 자리를 잡게된 학생은 수업시간으로 몇시간씩 자리를 비우면서도 하루출입 학비를 양보하지 않아 실제로는 빈자리가 많고도 다른 학생은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영해은 「도서관칙화」지나달 중순 「작성독점 금지제」실시를 공고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 大字報를 통한 학생들의 찬반토론을 물었다. 연일 열띤 찬반토론 끝에 「메모지 이용」등 효과적인 대안을 내세운 찬성의견이 우세했고總學生會側도 「도서관 이용에 대한 學生友들의 不滿」이 많았는데 늦게나마 이 제도가 도입돼 多善이라며 支持하고 나서 도서관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좇아 실시하게 됐다.

일부의 반발학생과 「단속의 實效性」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학생들도 점차 빈자리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모교측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定着하게 될것 같았다. 이제로는 다른 학교에도 파급되어 큰 화제가 될것 같다.

또한 2시간이상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면 도서관 직원들이 노란색 경고 딱지를 붙이며, '경고'가 붙은뒤 한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소지품을 수위실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다.

母校도서관 열람실은 2만5천명에 가까운 학생수에 비해 열람실좌석이 4천여석에 불과해 오전6시에 개관하면 7시에는 좌석이 모두 차는 등 자리잡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힘든 상황이었